



책으로 답사후 사찰나들이 떠나자

문화재 정보-기도성지 소개-명찰안내 등 다양

봄을 맞아 사찰로 향하는 상춘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사찰이 신령의 공간일 뿐 아니라 역사도 배우고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상춘객들은 사찰을 관광지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을 뿐 사찰의 속내 알기에는 뒷전이다. 인내서 한 권 정도만 읽어도 사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텐데.

대부분의 사찰 안내서들은 불자에 불과하고 각 전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전통사찰, 보궁, 기도성지, 암자의 역사와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최근 발간된 <나를 찾아가는 하루산행>(푸른

숲)과 <고승과 명찰>(책이있는 마을)도 이런 류의 책이다. <문화유산-명찰>(한국문인), <우리산 옛길>(대원정사), <절을 찾아서>(책세상),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 <절따라 전설따라>(대원정사), 사찰문화연구소에서 출간된 전통사찰 총서 등은 이미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전국의 유명사찰 50곳을 소개하고 있는 <문화유산-명찰>과 사찰문화연구소에서 내놓은 전통사찰 총서 시리즈는 사찰에 대해 견문을 넓히는데 적합한 도서를 준다. 또 고승 사인의 문학 기행집 <절을 찾아서>, 고승들의 수행 사찰을 중심으로 엮은

<고승과 명찰>, 암자 순례기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사찰 연기설화를 집대성한 <절따라 전설따라> 등은 독특한 주제로 사찰의 속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멸보궁을 비롯 지장·관음 기도도량을 소개한 책들도 적지 않다. 적멸보궁만을 소개하고 있는 <청산에 묻힌 보궁을 찾아>(중명), 적멸보궁을 비롯 관음, 지장, 약사, 문수, 나한 기도성지 36곳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불교기도성지>(불교시대사), <지장성지를 찾아서>(우리) 등이 그런 책들이다.

사찰 속의 불교상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참배의 즐거움을 배가 해 주는 책들도 있다. 석탑의 유래와 각 시대별 특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탑>(역민사), 탕화와 벽화 등 불교회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폴빛), 사찰의 미학을 사적으로 엮을 수 있는 <산사의 미를 찾아서>(다룬세상) 등을 쉽게 꼽을 수 있다.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한 신영훈씨의 '역사 기행사리드', 대원사의 '빛깔 있는 책들' 시리즈,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들은 필자들이 현장 속 속들이 답사했을 뿐 아니라 유려한 문장, 풍부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참고 문헌 등이 실려 있어 사찰 답사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준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보우스님은 요승아닌 대선사”

박영기씨 '순교자 보우선사'



조선시대의 요승(妖僧)으로만 알려진 허응당 보우 스님의 본래 모습을 조명한 <순교자 보우선사>(한길사)가 나왔다.

이 책은 보우 스님이 요승인가, 대선사인지는 의문에서 쓰여진 평전이다. 이 책을 쓴 박영기씨(동국대 강사)는 보우 스님은 조선의 불교말살정책 속에서 쓰러져 가는 불교를 중흥시키고 서산·사명과 같은 인재를 발굴한 대선사라는 결론부터 내린다. 요승이란 평가는 당시 불교를 배척하던 사람들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라는 것이다.

글쓴이의 보우 스님에 대한 평가는 “조선 초 송유역불의 암흑기에 불교중흥에 앞장서 한국불교의 명맥을 이은 선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최근의 일이고, 당대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생들에게 요승으로 몰려 제주도로 유배돼 순교하는 비운을 겪었고 이후 400년이 지나도록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 매도되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스님의 진정한 면모가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일본 불교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허응당집>을 비롯 근래에 발견된 보우 스님의 저술과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생애와 사상, 그리고 업적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되짚어가고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깨달음의 길 자연속에 있다

전재성씨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거지성자>란 책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독일의 수행자 페터 노이아르씨(58)의 두 번째 수행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선재)가 나왔다.

전재성씨(빠알리성전협회 한국대표)가 쓴 이 책은, 페터 씨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 사찰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천을 돌아본 한국 만행기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12월 KBS 일요스페셜에서 방영되었다.

이 책은 전편 격인 <거지성자>에서 다루지 못했던 페터 씨의 무소유 수행과 생태주의적 사상을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씩 보여준다.

'거지성자' 페터 한국 산천 만행기

페터 씨의 만행은 폭설이 내린 조계산 송광사를 찾아가는 데서 시작, 오대산 적멸보궁까지 이어진다. 2주간의 짧은 만행이지만, 그는 사찰과 수행자, 그리고 산천을 두루 찾는다. 그가 만난 사람은 송광사 보성 스님, 실상사 도법 스님, 일지암 여연 스님을 비롯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 씨, 생태주의적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농부들 등 다양하다.



128일 5개월 만행, 거지성자 페터 노이아르

특히 지리산 자락에 사는 한 할머니가 손수 재배한 국화로 만든 송복을 선물하는 장면은 가슴을 울리게 한다. 이들과의 만남과 여행하면서 글쓴이와 나눈 이야기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페터 씨는 무소유자이지만 이 책에 담긴 그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문명화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나'의 본질과 삶에 대한 성찰이 물질적인 풍요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깨달음의 길이며,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만을 소유할 것을 당부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자연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

만행기 사이사이 페터 씨가 털어놓는 우파니샤드, 셰익스피어, 카비르 등에 대한 한마디는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페터 씨는 묻는다. “사람들은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가꾼다. 그런데 왜 영혼은 가꾸지 않는가. 머리카락은 자르면서 마음 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는 욕망은 왜 자르지 않는가...”

페터 씨는 한국을 떠나면서 말한다. “한국은 두 개의 보물을 갖고 있다. 하나는 불법이요, 다른 하나는 숨이 막힐듯이 아름다운 자연이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이광준 교수 '정신분석해체와...' "禪 심리학 21세기 학문으로"

서양의 해체철학의 관점에서 심리학의 의미를 규명한 연구서가 나왔다. 이광준 씨(동서심리학회연구소장)가 펴낸 <정신분석 해체와 선 심리학>(학문사)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해체주의 사상의 기초개념,

정신분석학에 있어서의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 및 인격구조에 대해 살핀 다음, 이와 관련된 심리학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가아(假我)와 진아(眞我)와 같은 선의 주요 개념을 통해 인간의식세계를 탐구하고 있다.

글쓴이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심리학은, 인간 자체를 해명하지 않고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심리학은 정신적 빈곤 상태의 21세기에 있어서 정신과 물질,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학문의 꽃으로 발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선 심리학을 통해 의식계를 넓혀 온전한 깨달음의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 책은, 선 심리학의 기초, 자아구조의 해체, 심리학과 정신분석 단상, 참선의 선심리적 이해 등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는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운 책



지장보살 지장기도 이야기

▲지장보살 지장기도 이야기(진원종 지음, 은행나무)= 지장사상에서부터 유명 기도사찰과 기도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장기도 안내서. 철원 심원사 등 지장 기도처 12곳 소개를 시작으로 경전 속의 기도법,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법, 경전 속의 지장보살, 역사 속의 지장보살, 지장의례, 명부전에 얽힌 이야기 등 지장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려와 있다.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만하다. 값 7천원.



TV뉴스 속지 않고 읽는 법

▲TV뉴스 속지 않고 읽는 법(김종찬 지음, 새천년)= 불교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김종찬 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TV뉴스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쓴 평론집. 보석 홍보하는 파소비 고발 프로, 오후 뉴스는 왜 관공 기사를 선호하나, 휴일 뉴스에 즐겨 쓰는 트리, 토론프로의 허상과 실상, 특파원 국제 전화 연결의 트리, 신문과 TV뉴스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등이 이 책의 주요 내용. 올해 초부터 2월25일까지 TV 뉴스를 보면서 작성했다. 값 8천원.



한국의 풍수사상

▲한국의 풍수사상(노자키 미츠히코 지음, 동도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풍수사 최어중, 최창조 교수, 건축가 박시익 씨 등 글쓴이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풍수사상을 직접 만나 그들의 풍수관을 듣고 그 현장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풍수 여행. 한국 풍수 사상의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풍수와 일제 단막설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점이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다. 값 8천원.



남산스님의 불교산책

▲남산스님의 불교산책(남산스님 지음, 아카데미북)= 불교의 기초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서.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심자에서부터 일반불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불교를 접하기 전'을 시작으로 초심자들이 불법에 쉽게 다가가기 위한 공부법을 담은 '바른 스승을 찾아라', '마음공부', '와 불교는 어렵다고 카노' 등으로 구성됐다. 값 9천원.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전통문화란 무엇인가(이병직·김기홍 편저, 건국대출판부)= 한국사의 전통문화를 서술한 역사서. 전통문화가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었던 지혜와 문화 자산을 하나씩 고찰하고 있다. 전통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쓴 이 책은, 문화유산, 사상, 정치와 행정, 사회경제생활, 현대사회의 전통 등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역시아문
2	만행-허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3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	김 사 철	한국불교연구원
4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5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6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립	
7	김용옥 선생, 그전 아니었다	변 상 철	시공사
8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	피레리 펠즈	황금가지
9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립	
10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도서 안내: (02)737-0695

개국 10주년
www.bbsfm.co.kr

Vision Concert

김민중, Fly to the Sky, 씨콜, 샤크라, 쿨, 이지훈, 량현량하, 애코, 박혜경, 허쉬, 태미, Free Style

2000년 4월 21일(금) 저녁 7시
잠실실내체육관(농구경기장)

젊은불교

젊은방송

BBS 불교방송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빌딩
대표 (02) 705-5114 / FAX (02) 705-5229